

시온 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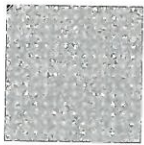
제2475호

2023년 11월 19일(가해)

연중 제33주일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발행인 정순택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seoul_jubo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xhGxjBxb
유튜브 www.youtube.com/@catholictube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예수성심 | 이남규 무가. 80x120cm, 레드케임 기법, 1985년, 성심수녀회 교육관 경당, 원호로

입당송 | 예레 29,11.12.14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재앙이 아니라 평화를 주노라. 나를 부르면 너희 기도를 들어 주고, 사로잡힌 너희를 모든 곳에서 데려 오리라.

제1독서 | 잠언 31,10-13.19-20.30-31

화답송 | 시편 128(127),1-2.3.4-5(◎ 1ㄱ 참조)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어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

제2독서 | 1테살 5,1-6

복음환호송 | 요한 15,4.5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복음 | 마태 25,14-30 <또는 25,14-15.19-21>

영성체송 | 시편 73(72),28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리이다.



나충열 요셉 신부 | 사회사목국 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

| 가난한 이의 벗이 되어...

예전에 어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 달 동안 현장 실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했던 일 중 하나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상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오후에 대여섯 집을 방문할 생각으로 한 집에 대략 30분 정도씩 시간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첫날 첫 집부터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제가 다른 집으로 가기 위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하면 또 다른 얘기를 하시며 거의 한 시간 동안 저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음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예상에서 어긋나는 당황스러운 첫날을 보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러셨을까?” 그래서 다음날부터는 아예 시간 계획을 세우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기특이나 없는 살림살이지만 가는 곳마다 하얀 종이컵에 정성스럽게 탄 커피믹스 한 잔을 부끄러운 듯 내어놓는 주름진 손을 보며 이내 마음이 따듯해짐을 느꼈습니다.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는 그 시간만큼은 가난이 주는 삶의 무게를 잊게 만드는, 서로에게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난을 결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핍을 무언가가 없다는 물질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기에 가난한 이를 위한 자선은 곧 내가 가진 물질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지금 당장 배고픈 이에게, 지금 당장 목마른 이에게는 허기를 채울 빵과 갈증을 해소할 물이 최선일 것입니다. 하

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가난의 고통은 물질의 결핍이 아닌 마음의 결핍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 경험처럼 더 이상 혼자가 아닌 누군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내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벗이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큰 힘과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보아도 우리의 사랑을 애타게 갈구하시는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외면하지만 앓는다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탈렌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넘치도록 풍성하게 받았음을 설명해 주십니다. 가장 적게 받은 것처럼 보이는 한 탈렌트도 당대 기준으로는 6천일 간의 일당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정작 우리 자신의 탈렌트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은 ‘세계 가난한 이의 날’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향한 자비와 연대, 형제애를 실천하도록 일깨우고 촉구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어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멸시받던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에 따라 우리 신앙인들도 가난한 이의 벗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청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마태 25,29)

스테인드글라스는 빛을 통해 자신을 드러냅니다. 투명한 유리를 통해 전해지는 유리그림은 풍성한 하느님의 이야기를 담아줍니다. 그런 스테인드글라스를 바라보며, 빛이 주는 사랑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제게 주신 기회나 축복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도 상황을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실천하며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변 사람들과 서로 나누며, 더 많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조용히 기도 안에서 청해 봅니다.

박정석 미카엘 | 루크글라스

작품 설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아 아녜스 | 작가

이웃사촌 요한 신부님의 새로운 소임지는 저희 부부가 오랫동안 후원해 왔던 보육시설이었습니다. 신부님은 저희가 퇴소하는 청년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길 바라셨고,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그중 한 청년으로 인해 저는 하느님을 만나는 놀라운 신비를 체험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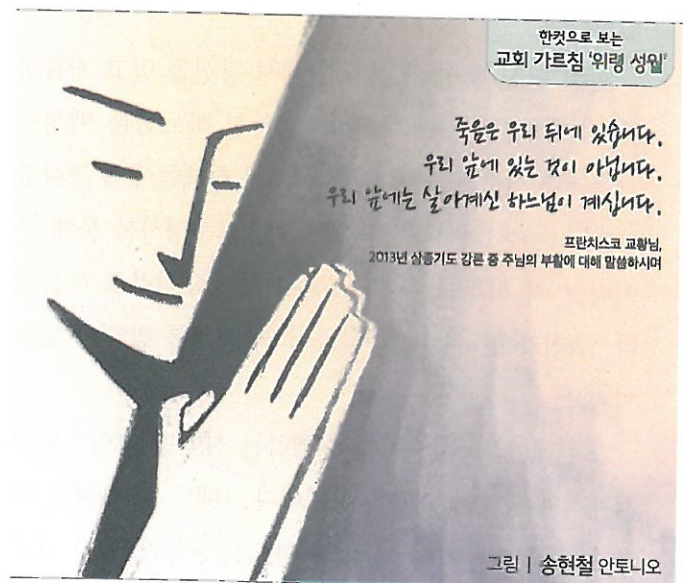
당시 청년은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시설에서 함께 성장한 여자 친구를 불법으로 촬영한 거죠. 제 안에서 편견으로만 존재하던 생각의 조각들이 점점 기정사실이 되려 했습니다. 동시에 청년의 텅 빈 눈동자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찰나였지만 청년에게서 깊은 외로움과 끝 모를 슬픔을 보았거든요. 외면하는 대신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대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부초처럼 떠 있는 그의 모습에서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때론 사고하는 방법조차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뒤 두려움이 너무 커서, 그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년을 통해 혈혈단신의 사전적 의미도 알게 되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편에 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칫 그 모습이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주님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길 청하고 또 청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청년을 위해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고통의 신비 4단을 묵상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느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진 것처럼, 네가 안드레아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져 주면 안 되겠니?” 신경을 집중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소리였지만 너무나 또렷하고 생생했습니다. 저를 둘러싼 세상이 일순간에 고요하고 따뜻하며 향기로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슬픔, 감사와 죄송스러움이 밀려와 눈물이 평

평 쏟아졌습니다. 저는 망설일 겨를도 없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동시에 하느님께서 왜 제게 부탁을, 아니 애원을 하실까 의아했습니다. 만일 “싫어요.”라고 대답한다면 그 즉시 “미안해. 방금 한 이야기는 못 들은 걸로 해줘.”라고 말씀하실 것만 같았으니까요.

저와 남편은 이번 한 번은 잘잘못을 떠나 청년의 온전한 부모가 되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청년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구속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결국 청년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목숨처럼 여기던 적금으로 손수 합의금을 마련했으며, 친구들을 설득해 탄원서를 받은 결과였습니다. 때마침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단체 문자였지만 제게는 하느님께서 친히 들려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에 대한 묵상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안드레아의 모습으로 저희에게 와주셨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신 덕분에 안드레아와 저희 부부는 이전보다 훨씬 기쁘고 평화로운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편 사제직(1): “여러분은 임금의 사제단”(1베드 2,9)



최현순 데레사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교수

‘사제’라고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아마 신부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분들은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아 성품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합니다. 즉, 강론이나 교리교육 등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뜻을 해석해 주며, 성사들을 집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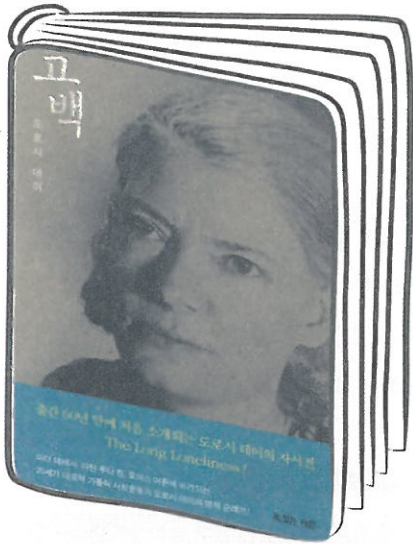
가톨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사제시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성경에 근거하는데, 특히 히브리서 곳곳에서(17회) 이 호칭을 언급합니다.(히브 2,17; 3,1; 4,14-15; 5,1,9-10; 6,20; 7,26, 등등) “그분께서는 다른 대사제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치고 그다음으로 백성의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으십니다. 당신 자신을 바치실 때에 이 일을 단 한 번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히브 7,27)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셨습니다.”(히브 9,28) 그리스도께서는 대사제이시자 제물이 되신 분입니다.

한편 당신 백성이 ‘진리 안에서 당신을 알고 거룩하게 섬기기를’(교회헌장 9항 참조) 원하신 하느님은 백성들 가운데 사람들을 선택하시어 ‘자기 형제들에게 봉사하도록’(교회헌장 18항 참조) 하셨습니다. 성품성사를 통해 주어지는 이 직무를 우리는 ‘직무 사제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만나는 신부님들이 이 직무를 받으신 분들이지요.

그런데 직무 사제직을 수행하는 사람만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1베드 2,9에서는 탈출 19,6을 인용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

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선택된 겨레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느님 백성 전체가 사제직을 받았다는 것은 묵시록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루어 당신의 아버지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신 그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묵시 1,6) 이 구절들에서 말하는 사제직은 성품성사를 받은 이들이 행하는 사제직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이 된 사람들 전체가 받은 사제직입니다. 이것을 ‘보편 사제직(Sacerdotium Commune)’이라고 합니다. 물론 성품성사를 통한 사제직과 수행 방식은 다릅니다.

가톨릭 신학에서 보편 사제직은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교부시대부터 중요하게 다루었던 주제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에게 이 단어가 생소한 것은 사실 교회 역사 때문인데요, 16세기에 있었던 루터의 교회 개혁 시도가 교회 분열로 이어지게 된 원인은 보편 사제직 개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루터는 세례받은 모든 사람이 사제직을 수행하고(개신교에서는 이것을 ‘만인 제사장직’으로 번역), 직무 사제직은 신자들이 자기들이 받은 사제직을 한 사람에게 위임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직무 사제직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가톨릭과 개신교 간에는 많은 갈등과 투쟁, 전쟁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후 가톨릭교회에서는 보편 사제직에 대해 별로 언급하지 않게 되었고, 거의 400년이 지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야 이 개념을 회복합니다.



도서 '고백'

평화와 '오랜 외로움'



김우선 데니스 신부 | 예수회, 서강대학교 교수

그리스도교 평화운동을 펼친 도로시 데이(1897-1980)를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폭력의 악순환과 아이들의 희생을 목격하면서 평화가 절실한 시대를 살기에 도로시의 자서전 《고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의 원제목은 '오랜 외로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5년 미국 방문 중 의회 연설에서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한" 미국인 4명을 거명했는데 이분을 링컨과 더불어 포함했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링컨과 '동급'으로 언급했을까요?

도로시는 대공황, 2차 대전을 거쳐 초강대국이 된 20세기 미국 역사 한복판을 살아간 신앙인입니다. 대공황에서 내몰린 노동자를 위해 환대의 집을 운영하며 가톨릭 노동운동을 하고 또 전쟁에 반대하여 평화운동을 했습니다. 파란만장했던 삶을 다룬 이 자서전에는 생각할 거리가 많습디만, 오늘은 그리스도교 평화주의에 초점을 둡니다.

도로시는 <전쟁은 국가의 활력>이라는 제목으로 자서전의 한 장을 할애하여

평화운동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나눕니다. 미국은 2차 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에 모두 관여했고, 전쟁은 미국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교회의 입장은 전통적으로 '정당한 전쟁론'이지만, 도로시는 이를 넘어서 그리스도교 평화주의를 개진합니다. 미국 정부나 주류 미국인은 미국의 전쟁을 정당한 전쟁으로 보았지만, 도로시는 달리 보았습니다. 심지어 가톨릭 노동운동 지지자들이 평화주의에 동의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도 그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공의회 마지막 회기에는 핵전쟁 반대, 평화주의를 위한 단식도 했고, 베트남전쟁 반대를 하며 투옥되는 것도 불사했습니다. 이런 활동은 베트남전쟁을 강력히 지지하던 당시 뉴욕교구장의 활동과 대조가 됩니다. 평화주의는 가톨릭 노동운동, 가난한 사람에 대한 환대와 더불어 도로시가 미국의 주류사회에 도전하며 남긴 족적입니다.

한국전쟁을 경험한 한국인이 정당한 전쟁을 넘어서는 '복음적 상상'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 한국인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산상수훈에 기반한 도로시의 평화주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재발견하게 합니다.

도로시는 어떻게 해서 복음에서 평화주의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회심에서 단초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젊어서 이혼, 낙태, 방황을 하다가 서른 즈음 출산을 앞두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든" 출산할 아이에게 세례를 주고 자신도 세례를 받겠다는 결심입니다! 그 결과 아이의 아버지인 무신론자 동거인과 결별도 감수했습니다. 하지만 도로시는 신앙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이후 그는 깊은 기도 에 뿌리를 두고 사회적 실천을 하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도로시는 복음에 대한 신앙이 평화주의를 포함해서 자신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비록 '오랜 외로움'을 겪는다 해도!

도로시를 보면서 자문하게 됩니다. 내가 다음 세대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무엇일까?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부서를 소개합니다

주보편집부



1998년에 제1호를 발행한 청년주보는 주보편집부 청년 봉사자들의 손으로 엮어 25년째 매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젊은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기록하며 주님을 전하기 위해 매주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주님의 사도로 활동하는 주보편집부와 함께 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홍보부



홍보부는 청년들의 신앙 이야기를 미디어를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기획 상품, 인터뷰, 신앙 콘서트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주님과 청년 사이를 연결하며 복음을 전하는 홍보부에서 영상편집, 사진 촬영 등 미디어 제작에 관심 있는 청년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번역부

번역부 '에로니모'는 청년을 향한 교회의 목소리, 특히 영어 콘텐츠를 매주 우



리말로 번역하여 청년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교황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 SNS 게시글, 생활성가 및 가톨릭 유머를 번역하여 누구나 해외 가톨릭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봉사하고 있습니다.

전례연구부



전례연구부 '아뉴스데이'는 전례 봉사자로 활동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전례학교'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에 모여 전례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행사를 준비하며 친교와 나눔을 통해 깊은 신앙을 다져가는 '아뉴스데이'와 함께 할 청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유빌라테



'온 세상이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라는 뜻의 '유빌라테' 생활성가 밴드부는 음악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모여 소소하

면서도 넘치는 재능을 모아 주님께 환성 올리며 청년들의 마음에 신앙의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음악을 통한 친교와 신앙 나눔이 있는 유빌라테로 초대합니다.

교구외향단



교구회장단은 각 본당과 지구의 청년 임원들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교구상임위를 통해 교구 사목 방향에 맞는 활동을 공유하고, 지친 청년 봉사자들이 친교와 신앙 안에서 재충전하며 리더로서 소명을 다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또한 지구 방문을 통해 지구 내 청년 활동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선택



선택은 젊은이들이 진솔한 대화를 통해 자신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서로 알고 사랑하며 나누기 위하여'

라는 표어 아래 여러 인간관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그 관계에 충실함으로써 가정, 사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더욱 깊이 소속감을 느끼도록 이끌어 줍니다.

하느님의 도구로서 함께할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02)762-5071, 2

회칙 <찬미받으소서>와 '하늘땅물벗'



이재돈 세례자요한 신부 | 사회사목국 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님께서는 2023년 9월 1일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을 맞이하여 특별 사목교서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배우고 실천합시다”를 발표하셨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970년 김수환 추기경께서 발표하신 “모자보건법 제정을 반대한다”가 첫 번째 특별 사목교서이며, 이번 교서는 교구장님께서 발표하신 두 번째 특별 사목교서입니다. 첫 번째 특별 사목교서가 인간 생명의 존귀함을 다룬 문서라면, 이번 두 번째 특별 사목교서는 생태계의 중요함을 다룬 문서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특별 사목교서에서 교구장님께서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반포하신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가르침을 우리 교구의 모든 신자가 알고 실천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공동의 집인 지구가 파괴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 원인과 대책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 사목교서는 <찬미받으소서> 211항에서 제시하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들을 우리 교구의 모든 교우들이 실천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① 플라스틱이나 종이의 사용을 가급적 삼가기, ② 물 사용을 줄이기, ③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기, ④ 적당히 먹을 만큼만 요리하기, ⑤ 생명체를 사랑으로 돌보기, ⑥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승용차 함께 타기 실천하기, ⑦ 나무 심기, ⑧ 불필요한 전등을 끄기.

특별 사목교서는 <찬미받으소서>의 가르침을 본당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본당 신부님들의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본당 사목협의회 산하에 ‘생태환경분과’를 설립할 것을 권유합니다. 생태 문제에 대해 눈을 뜰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 생태적 회개와 생태 영성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한 방편 중 하나로 본당에서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를 월 1회 정기적으로 봉헌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사목교서에서 주목할 점은 생태운동을 효과적이고 지속해서 실천하기 위하여, 생태 사도직 단체인 ‘하늘땅물벗’을 본당에 설립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점입니다. ‘하늘땅물벗’은 ‘하늘과 땅과 물을 살리는 벗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늘땅물벗은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영성과 활동을 근간으로 하고 레지오 마리아의 조직을 참조하여 우리 교구에서 2016년 10월 4일에 창립하였고 2017년 2월 1일에 교구의 인준을 받은 생태사도직 단체입니다. 사목교서는 특히 본당의 청소년들이 ‘하늘땅물벗’ 운동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환경 위기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특별 사목교서를 계기로 많은 본당에 ‘하늘땅물벗’이 설립된다면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가르침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11월 19일)은 제7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입니다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교회발표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건설업체 정규 등록 신청 안내

정규 등록 분야: 신축, 리모델링
 등록 신청 기간: 11월 20일~12월 15일
 자격 및 서류 제출, 심사, 등록 공고 등 자세한 사항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https://aos.catholic.or.kr>) 교구정규등록건설업체, 또는 가톨릭인터넷 굿뉴스 홈페이지(<http://www.catholic.or.kr>) 하단 '교구'란의 '교구정규등록건설업체' 참조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45년 11월 25일 최종철 마르코 신부(55세)
- 2016년 11월 20일 김대군 파트리치오 신부(77세)
- 2016년 11월 21일 김정직 디오니시오 신부(75세)

성골롬반외방선교회 도 미카엘 신부님 선종

서울대교구에서 활동하셨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도 미카엘(Michael Dodd) 신부님께서 지난 11월 5일 아일랜드 드에서 선종하셨습니다. 도 미카엘 신부님은 1937년 아일랜드 룡포드주 옛지위스스타운 리스카힐에서 출생하여 1961년에 사제품을 받으셨습니다. 진도성당(광주대교구)·목포 경동성당(광주대교구)·월산동성당(광주대교구)·목포 산정동성당(광주대교구)에서 사목하시고 광주교구청을 거쳐 상계동성당, 공덕동성당, 서울대교구 JOC 지도, 한국 지부장으로 사목하셨습니다. 11월 7일(화)에 장례 미사를 거행했습니다.

서울주보 게재 신청 안내

-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 서울주보 게재 신청은 교회기관·수도회이거나,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서울대교구 사목국에 등록된 단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내용 수정·취소는 주보 게재일로부터 2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교구청 일침

주교회의 여성소위원회 정기 세미나 안내

주제: '노년기 여성의 영성' - 사회적 기여와 관계성 증진을 위하여 /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때: 11월21일(화) 오후 2시~5시 / 문의: 02)460-7641
 곳: 서울대교구청 신관 5층 501호실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신성태 개인전: 1전시실
 김유경 개인전: 2전시실
 경기도 55회 DiFiPhoNo 사진전: 3전시실
 전시일정: 11월15일(수)~23일(목)

경찰사목위원회 선교사 모집

대상: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에 관심 있는 견진성사를 받은 서울대교구 신자
 교육기간: 11월29일부터 매주(수) 오전 10시(16주 과정)
 곳: 가톨릭회관(명동) / 회비: 10만원
 11월21일(화)까지 접수 /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 및 교육과정은 홈페이지(<http://www.catholicpolice.or.kr>) 참조
 문의(신청): 02)742-9471, 3 경찰사목위원회 교육센터

가톨릭 영유아(만 5세 미만) 부모 교육

주제: 우리 아이와 함께 성경 읽기
 강사: 박중수 신부(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유아부 지도신부)
 때, 곳: 12월9일(토) 10시~12시30분, 영성센터202호(구 계성여고) & 온라인교육(ZOOM)-양방향 동시 진행 / 신청: 11월20일(월) 10시~12월1일(금) 16시 유아부 홈페이지(www.catholicinfant.or.kr) 접수
 문의: 02)727-2115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유아부

큰사랑 봉사회 소방관 가족 기도모임

문의: 010-6234-6910 직장사목팀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 심포지엄

주제: 가톨릭 학교 교육의 정체성, 자주성, 공공성
 때: 11월24일(금) 10시30분~16시20분
 곳: 서울대교구 명동대성당 포스트홀
 문의: 02)460-7625 주교회의 교육위원회

가톨릭 임상사목교육(CPE 교육) 교육생 모집

위기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과(가족, 교우, 이웃)를 돌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적돌봄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문의: 02)727-2434
 교육프로그램: 정규반(16주), 단기반(8주)
 서울센터: 명동 임상사목교육센터
 수원센터: 성린센터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2023 영성심리아카데미 / 문의: 02)727-2126
 영성심리특강(송봉모·오용진·홍성남·김하중 신부), 이 지나 작가의 영적글쓰기, 건강한 겨울 보내기(윤재연 정성과 의사)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교육신청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문자 가능):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민족화해위원회

1)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讎 분당 미사)
 때, 곳: 1393차 미사 11월21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주 기억할 분당: 평양교구대신리본당, 관후리본당 미사 후, 한반도 평화와 복讎분당을 위한 묵주 기도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2) 후원회 미사
 대상: 후원회원 및 누구나
 때, 곳: 11월24일(금)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소성당) / 문의: 02)727-2415

환경사목위원회

1) 본당 사목위원 생태교육
 대상: 본당 생태환경 관련 사목위원, 관심 있는 일반 신자 / 문의: 02)727-2283, 2278 환경사목위원회
 내용: 특별 사목교서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배우고 실천합시다'(이재문 신부, 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때: 11월22일(수) 19시~21시 / 회비 없음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2) 제48회 가톨릭 예교포럼
 대상: 일반신자, 신학생, 수도자, 성직자 누구나
 내용: 생물다양성(한정택 명예교수, 서강대 생명과학과)
 때, 곳: 11월29일(수) 19시~2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 회비 없음
 문의: 02)727-2283, 2278 환경사목위원회

향심기도 월피정 / 문의: 010-4565-8898

대상: 소개강의 이수자 / 지도: 이승구 신부
 곳: 영성센터 B201호(구 계성여고) / 회비: 1만원

직장인	12월3일(일) 13시30분~16시30분
일반인	12월4일(월) 13시30분~16시30분

인준단체 알림

모임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성모승천수도회 십자가 도보 성지순례

때, 곳: 2024년 2월2일(금)~14일(수), 중부 유럽수도원 순례(오스트리아·독일 외) / 문의: 010-2378-9104

11월 '잡시멈춤' 청년 기도모임(착한목자수녀회)

때: 11월22일(수) 19시30분 / 문의: 010-7197-1390
곳: 영성센터(명동) B401호 / 대상: 남녀 청년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금요일아기기도회

강사: 노경덕 신부 / 울동, 찬양, 고해성사
때, 곳: 11월24일 18시~22시(미사 21시),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500·504·651 환승 천주교성령봉사회하차 / 문의: 010-3242-6868

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 성지순례 / 문의: 010-7374-3217

2024년 1월1일~9일	이스라엘(8박9일) / 회비: 475만원
2024년 6월7일~15일	이스라엘(8박9일) / 회비: 465만원

11지구 역삼동성당 기도회

때, 곳: 매주(금) 19시~21시40분(미사 19시), B1 경환당(주차 가능) / 문의: 010-4667-3792 서 카타리나

11월24일	이상기	12월1일	홍성학 신부
--------	-----	-------	--------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회성) / 010-3340-0201

성경 읽기	12월8일(금)~16일(토), 2024년 1월5일(금)~13일(토)
안소근 수녀와 함께하는 구약여행 이사야서II	12월27일(수)~29일(금)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곳: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문의: 02)990-1004 / 개인·단체 피정 접수 가능

개방의 날	매월 첫번째(금) 12월1일 10시~15시30분
대림 피정	12월5일·12일·19일 매주(화) 10시~16시
대침묵 피정	12월8일~10일(2박3일)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자연순례	12월9일~11일, 12월15일~17일
눈꽃산행	2024년 1월20일~22일, 1월26일~28일, 2월2일~4일, 2월17일~19일, 2월25일~27일
연말연시 피정	12월29일~1월1일(눈꽃산행)

가정선교회 12월 피정-미사(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토요 피정과 성모신심 첫토 미사	12월2일(토) 12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강사: 배광하 신부
성가정 영성 피정	12월6일(수) 12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강사: 박재찬 신부, 이현주 회장
치유·회복을 위한 찬양 피정	12월16일(토) 12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강사: 맹진학 신부, 찬양: 고영민 부회장, 손현희 팀장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곳: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북해도, 도쿄, 오사카
회비: 120만원(3박4일) / 문의: 010-3645-9028

반장·구역장·레지오 단원 1일 피정

곳: 살레시오회 교육관(신길동) / 수시 접수
문의: 02)828-3522 살레시오회 관구관

평화의 모후 청년 쉼 모임(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대상: 미혼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매주(금) 19시30분, 가톨릭회관 516호

성체현시와 성모승 천편 기도회

때: 11월20일(월) 12시30분~17시
곳: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 사랑의성령봉사회

바로교육관 본당단체 피정 / 문의: 010-4229-7894

내용: Visio divina(성화)와 클래식 음악과 함께하는 피정
대상: 본당 단체, 소그룹 피정 / 인원: 15명~25명
때, 곳: (금)·(토) 가능, 샬트르성바로수녀회 바로 교육관(명동대성당 성모동산 뒤편)

2024년 골롬반 단기선교체험(필리핀)

대상: 24세~39세 신자(선착순 5명)
때: 2024년 1월16일(화)~23일(화) 7박8일
회비: 항공료, 여행자 보험만 본인 부담
11월30일까지 접수 / 접수 bit.ly/SIM2024PH
문의: 010-3817-0567 골롬반평신도선교사센터

교구 성지순례 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전례 탐방

때: 2024년 2월17일~19일(수도원·대구 17곳)·3월1일~4일(수도원·부산 8곳·마산 6곳)·3월14일~17일(전주 11곳·광주 4곳)·4월20일~24일(울릉도·독도·수도원)·서울 명동(대형버스) 출발, 5월15일~28일(독일 수도원·바티칸·이탈리아)·인천공항 출발
문의: 010-3807-1784 라 이시돌(예관 성 베네딕도 피정의 집)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계절마다 아름다운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연말연시(해넘이·해돋이·눈꽃산행) 12월30일~2024년 1월2일, 한라산 자연순례 12월8일~10일, 12월16일~18일, 눈꽃산행 1월6일~8일, 1월12일~14일, 1월19일~21일, 1월27일~29일, 2월3일~5일, 2월14일~16일, 2월23일~25일 /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교육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물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특강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성가발성 노래교실 / 문의: 010-9842-8818

'다함께 성가를 TV' 이호중 교수 직장
곳: 시스템나눔악원(주최, 신촌)

가톨릭노동장년회 풍물패 '풍물림'

장구, 북, 팽과리 같이 배우고 싶은 분 초대합니다
때, 곳: 매주(월) 19시, 노동사목회관
회비: 3만원(수시 모집) / 문의(접수): 010-3239-9308

벨칸토 발성 아카데미

성가, 가곡 / 초보자 환영
강사: 강신옥 / 문의: 010-2252-2974 국악성가연구소

미국 겨울 단기연수(스쿨링) 학생 모집 / 문의: 02)2258-8983

대상: 초5~고1 / www.oakinternational.co.kr
2024년 1~2월 미동부 보딩스쿨 스쿨링 및 단·장기 입학
주최: 그리스도 레지오회 운영 해외학교법인

예수회 생활기도수련원

정규한 신부의 '하느님 안에서 세상보기'
때: 12월5일 개강, 매주(화) 13시30분(10주)
곳: 삼성동 / 강의 방법: 화상, 대면, 녹화 강의 병행
인원: 선착순 15명 / 문의(접수): 010-3845-3045

서강대학교 '가톨릭 지성인을 위한 영성 강의'

주제: '상처와 용서' 다시 보기 / 문의: 02)705-4711
강사: 송봉모 신부(예수회) / 회비 없음
때: 11월27일(월) 14시~16시(강의·미사)
곳: 서강대학교 이나시오 소강당

한국틴스타 교사양성워크숍 / 문의: 02)727-2358

대상: 가톨릭 인격적 성교육에 관심있는 분
때, 곳: 2024년 1월22일(월)~26일(금) 9시30분~16시30분, 명동 영성센터 B동 202호
회비: 18만원 / 신청방법: www.teenstar.or.kr

원어로 읽는 성경 기초반(히브리어·희랍어)

때, 곳: 2024년 1월부터 1년간, Zoom
회비: 3개월 30만원 / 문의: 010-4598-6912 김성태 신부(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수)	19시30분~21시30분	(목)	10시~12시
-----	---------------	-----	---------

가톨릭성서모임 직장인을 위한 축복받은 성경읽기
그룹형 성경 통독 / 주1회 비대면(그룹별 5~10명)
과목별(창세기~요한복음) 2~3개월 / biblemove.com
교재비: 과목당 4천원 / 문의(접수): 02)824-4363

창세기 시작반	12월 중 첫 모임	평일 오후 8시 또는 주말반
마태오 시작반	12월 중 첫 모임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24년 전기(주간)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11월27일(월)~12월4일(월)-전형일 12월9일(토) / 홈페이지: http://gsot.sogang.ac.kr
문의: 02)705-8668 / 영성·철학상담: 철학을 중심으로 신학, 사회복지학 세 전공의 협동과정임

석사	신학, 철학(철학·철학상담), 사회복지학(사회복지·복지상담), 가톨릭사회복지학, 영성·철학상담
박사	신학(교의·조직 / 영성), 가톨릭사회복지학(실천·정책·행정), 영성·철학상담

제23회 가톨릭평화방송 겨울방학 영어캠프

문의: 02)734-0999(www.cpbccamp.com)

미국 LA영어캠프 (3주)	2024년 1월10일~30일 / 디즈니랜드, UC버클리·스탠포드·UCLA 재학생 간담회, 유니버설, 그랜드캐년,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사이판 (4주)	1월10일~2월3일 / 가톨릭국제학교 정규수업, 마나가하섬. 정글투어 다양한 현지 액티비티

'탈종교화 시대 한국가톨릭의 미래와 전망' 세미나
 때, 곳: 11월23일(목) 14시~17시, 가톨릭회관 2층 강당(203호) / 문의: 010-2053-8695 주 세레나 누구나 참여 가능 / 주최: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모집

cpbc소년소녀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첫영성체 받은(2024년 예정) 초2~초6 가톨릭 신자
 오디션: 12월10일(일) 14시, 가톨릭평화방송 B1 합창단실 / 12월7일(목)까지 이메일 접수
 홈페이지(www.cpbc.co.kr) 공지사항 참조
 문의: 010-2650-8014 cpbc소년소녀합창단

미사

평양교구 신우회 월례미사 / 문의: 02)727-2056
 때, 곳: 11월22일 1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새천년복음화학교 1단계 149기 수료 미사
 때, 곳: 12월3일(일) 15시~17시, 가톨릭회관 7층
 문의: 02)753-8765

철두산순교성지 마리아연례회 미사 / 문의: 02)3142-4434
 때, 곳: 11월24일(금) 11시30분, 전철 2·6호선 합정역 7번 출구 / 내용: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연도 및 미사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열린미사

내용: 한편의 신부(성골롬반외방선교회)
 때, 곳: 11월25일(토) 16시, 골롬반 선교센터(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번 출구) / 문의: 02)953-0613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월례미사

내용: 특별 음악 피정 / 02)6253-3373, 010-8360-3700
 강사: 풀잎 김연희 수녀(예수성심시녀회)
 때: 11월20일(월) 14시~16시, 가톨릭회관 1층 대강당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월례미사 / 문의: 02)749-4596

중남미 선교와 사제양성을 위한 후원미사입니다
 때: 11월27일(월) 14시 / 집전: 송영호 신부
 곳: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북방선교회 후원회 월례미사 / 문의: 010-6245-6096

대상: 북방선교에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 회비 없음
 집전: 유동철 신부(해외선교봉사국 차장)
 때, 곳: 11월27일(월) 14시, 가톨릭회관 205-2호

클래식기타와 함께 하는 미사와 연주회

미사: 김경희 신부, 우대근 신부 공동집전
 때, 곳: 12월2일(토) 19시, 왕십리성당
 기타지도: 이화진 / 지휘: 윤태원
 문의: 010-9297-1543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

안내

돌아보며 깨닫기 영성심리상담

문의(예약): 010-3173-2665 최영민 신부(예수회)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심리, 가족갈등 전화상담
 상담·문의: 02)990-9366 (월~금) 10시~16시

수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익산 클라라봉쇄수도원은 보수공사로 유지가 어려워 재건축이 불가피합니다 도움을 겸손히 요청합니다 / 문의: 010-6680-0692
 계좌: 국민 753501-01-480346 (재)천주교유지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 전문병원, 중독중점치료(도박·인터넷 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수시 모집 /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모지 하늘의 문 성당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 준공: 2024년 하반기(예정)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연수원)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천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못 순교성지, 서지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 문의: 041)934-7758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홈페이지: https://yonaresort.modoo.at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등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자녀)간의 갈등, 행동문제, 대인기피

아동그룹홈 후원자 모집(도미니코 수도회)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후원을 희망합니다
 아동그룹홈 주거복지에 도움을 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02)982-9196, 010-3012-2616 조성하 신부

유관단체 알림

한민족통기회 통일기원 미사

주례: 신희준 신부 / 문의: 010-8126-5676
 때, 곳: 11월28일(화) 14시,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101호

직원모집

명일동성당 관리인 모집

분야: 관리인 1명(계약직) /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로 시설물 관리, 미화, 기타 방호 업무 가능한 분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1월26일까지 방문·우편(우 05235, 강동구 양재대로 156길 28) 접수 / 이메일(belle14@seoul.catholic.kr) 문의

대치동성당 방호원(계약직) 모집

분야: 방호원 1명 / 대상: 신자로 고압가스안전관리자, 냉동기계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 이메일 문의
 방문 및 이메일(dcsd1979@catholic.or.kr) 접수
 1차 서류 심사 후 2차 면접(합격자 개별 연락)

세종로성당 사무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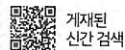
분야: 사무원 1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로 사무 행정·회계 업무·PC 업무 가능한 분 / 이메일 문의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이메일(prayforus@seoul.catholic.kr) 및 우편(우 03169,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9 세종로성당) 접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서울대교구청 재무회계팀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관련 경력자 우대
 분야: 재무회계 담당 1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분야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12월3일(일)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74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 이메일 문의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2034-0042 이호준 신부
살레시오회	매월 네번째(토) 14시	관구관(신길동)	010-6221-3520 유명일 신부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11월26일(일) 9시	분원(장충동)	010-8353-2323 (문자 문의)
성 베네딕도회 요섭 수도원	수시	수도원(남양주 별내)	010-4241-1210 성소 담당
작은예수수녀회	수시	수녀원(군자동)	010-8939-7970
착한목자수녀회	수시	수녀원(전철 2호선 건대입구역)	010-7197-1390 효주 수녀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수시	선교회(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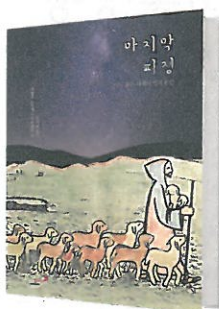


신간

야호! 만화 교리

양완지음
 바오로딸 | 160쪽 | 1만3천원
 문의: 02)944-0944

광주대교구 사제이며, 생활성가 그룹 활동도 하고 있는 양완 신부가 쓰고 그린 만화 교리 책이다. 미사, 성사, 기도, 사순, 부활, 성탄, 전례력, 교회 상식 등 신앙생활 가운데 궁금함을 풀 수 있는 내용들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어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교리 책이다.



신간

마지막 피정

파블로 도밍게스 프리에토 지음
 성바오로출판사 | 272쪽 | 1만6천원
 문의: 02)945-2972, 010-2572-1365

이 책은 파블로 도밍게스 프리에토 신부가 한 봉쇄 수도원에서 영신 수련 피정을 지도했던 내용을 모은 것이다. 맑은 영혼의 파블로 신부는 항상 쇠신하는 사제의 삶을 살았다. 그의 기도와 묵상 안에 언급된 지상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의 경계가 마치 하늘과 땅이 경이롭게 만나는 장면처럼 이 책에 통합되어 있다.



신간

2024 탁상 달력
 (축복을 빌어주시는 마리아)

성바오로딸수도회
 1만7천원
 문의: 02)944-0944

2023년에 명동의 갤러리1898에서 전시했던 김옥순 수녀의 제15회 개인전 작품 중 성모님이 들어간 그림 중심으로 기획했다. 교회 전례력 안에서 중요한 전례 시기와 축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개인의 중요한 일정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마지막 장에는 하루를 기록히 지내는 기도와 저녁기도를 담았다.



신간

말씀과 함께
 2024년 수첩

성바오로딸수도회
 5천원
 문의: 02)944-0944

<찬미받으소서> 여정을 걷는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여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을 돌보고, 생물 다양성을 존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멸종 위기종인 동식물 그림이 18가지를 담았다. 매 달마다 멸종 위기동물의 현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2가지씩 담았으며, 별칭을 붙여 즐거운 실천으로 이끌어 준다.



신간

탁상용 말씀 달력
 2024 주님과 함께

성바오로딸수도회
 1만원
 문의: 02)944-0944

매일의 성경 구절이 날짜와 함께 인쇄되어 있으며, 2024년 주님과 함께 달력에는 오늘을 기록할 수 있는 공간이 추가되었다. 소중한 기념일, 마음에 담아둔 기도, 감성이나 결심을 기록하여 나만의 달력을 만들 수 있도록 구성했다.



뮤지컬

시스터 액트

입장권: VIP석 17만원, R석 14만원, S석 11만원, A석 8만원 / 문의: 02)6391-6333 EMK뮤지컬컴퍼니
 QR 코드를 통해 예약하는 분에 한해 VIP석 15%, R석·S석·A석 20% 할인(11월 21일~12월 31일) (*단 12월 23일~25일 할인 제외)

뮤지컬 <시스터 액트>가 11월 21일(화)부터 2024년 2월 11일(주일)까지 서울 디큐브링크아트센터에서 공연된다. 리노의 무명 가수가 조직의 보스에게 살해당할 위협을 받자, 경찰이 그녀를 샌프란시스코 수도원의 수녀로 위장하여 보호 구금하면서 생기는 사건을 그린다. 영화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노래와 춤을 추가해 더욱 화려하고 흥미진진한 작품으로 재탄생했다.



제2시대문·마포지구 대표본당
연회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회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최성기(헨리코)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부주임신부 : 진현구(베드로)
 보좌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연령회장 : 이범자(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유아세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 주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혼인면담	매월 셋째 주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축하합니다****



첫영성체를 하는
 13명의 어린이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 초등부 첫영성체 : 11월 18일(토) 오후 3시
- ◎ 남성총구역 족구대회
 일시 : 11월 19일(주일) 오후 2시 ~ 오후 5시
 장소 : 서대문 청소년 수련관
 문의 : 남성총구역장 (010-4913-1158)
- ◎ 성소후원회 미사
 일시 : 11월 21일(화) 오전 10시
- ◎ 바오로시니어대학 종강식 및 졸업식
 일시 : 12월 1일(금) 오전 10시미사 후
- ◎ 성모신심미사 : 12월 2일(토) 오전 10시
- ◎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축복식·어린이 축복식
 일시 : 12월 3일(주일) 오전 11시 교중미사
- ◎ 연령회 미사
 일시 : 12월 5일(화) 오전 10시
 매월 첫번째 화요일 10시에 연령회 미사(선종하신 분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미사 후 돌아가신 연령을 위해 연도를 바칩니다.
- ◎ 성탄 집중 판공성사
 일시 : 12월 14일(목) 저녁 7시 30분
 장소 : 성전 및 임시 교해실
 ※ 성사표는 각 구역반장님을 통해 배부합니다.
 기타구역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 남성 울뜨레아
 일시 : 11월 19일(주일) 교중미사 후 301호
- ◎ 여성 울뜨레아
 일시 : 11월 28일(화) 오전 10시 미사 후 304호
- ◎ 문화학교 12월~2월 학생모집(주일학교)
 수강과목 : 바이올린, 통기타, 우쿨렐레, 미술, 한글캘리그래피
 접수기간 : 재접수 - 11월 15일(수) ~ 19일(주일)
 신규접수 - 11월 20일(월) ~ 24일(토)
 개강 : 12월 2일부터 / 매주 토요일 수업
 접수및문의 : 카카오톡 채널
 「연회동성당문화학교」 친구추가 후 등록, 문의



- ◎ 연령회 남·여 회원 모집
 문의 : 루시아 회장 (010-6288-1683)
- ◎ 2024년 각 단체 예산 신청서를 11월 19일(주일)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신청서는 맑은고딕 서체, 11포인트, 엑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단체 예산 신청서 양식은 연회동성당 홈페이지 참여마당 자료실에 있습니다.
- ◎ 부활 판공성사, 성탄 판공성사를 보신 후 반드시 성사표를 제출하시거나 사무실에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교적에 성사 이력이 3년 동안 입력되지 않으면 냉담자로 처리됩니다.
- ◎ 승합차 사용 안내
 연령회의 원활한 상가 협조를 위해서 모든 단체들의 승합차 사용은 당일만 가능합니다.
- ◎ 교무금 책정 현황 (2023. 11. 12)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2년 책정율	2022년 납부율
2,042	840 (41.1%)	809 (39.6%)	43.8%	41.8%

교무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 137-04-110875

※ 책정한 세대는 12월분까지 납부해주시고, 미책정 세대는 빠른 시일 내에 교무금을 책정하신 후 2023년도 교무금을 완납해주시기 바랍니다.

- ◎ 연령회 감사헌금
 故 정태호 바오로 상가 오십만원
- ◎ 감사헌금 (11월 6일~12일)
 박선모 오천원 구자정 오십만원
 이영주 이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황정숙 일십만원 박명숙 오만원
 익명 일십만원 이지만 오만원

- ◎ 우리들의 정성 (연중 제32주일)
 교무금 8,955,000원
 주일헌금 5,116,500원
 평신도주일2차헌금 1,754,000원

입당	337	봉헌	212,340,342	성체	498,187,344	파견	77
----	-----	----	-------------	----	-------------	----	----

